

제 3 주제

체코의 유리

윤 명 숙

(남서울대학교 유리조형학과 겸임교수)

1. 체코의 유리산업 현황

새로 EU에 가입한 동유럽 4개국(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중 가장 안정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체코는 2005년 동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무역 흑자 국에 진입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체코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자동차와 기계 산업 이외에 관광과 유리 산업 또한 체코의 경제를 이야기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들이다.

매년 체코 인구의 10배나 되는 1억 명의 관광객이 체코를 방문하며 그 관광객들의 80% 이상이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집중된다. 프라하에서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구시가지 중심에서 반경 1km 안에 유리를 파는 가게만 무려 100개가 넘는다. 발길 닿는 곳이나 눈길에 머무는 곳이 다 유리 파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연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라에서 수출하는 유리 제품이 2005년, 420억 코론 (Kč · 체코 통화단위 - 약 2조 원)에 달한 것만 봐도 유리공업 산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2. 체코 유리의 역사

프라하의 유리 상점들에 공급되는 유리들은 주로 보헤미아 지역에 퍼져있는 2백여 곳의 크고 작은 공방에서 만들어진다. 흔히 체코 유리하면 보헤미아 크리스탈을 먼저 떠올리는데 지금의 체코 북서부지역에 해당하는 보헤미아에서 유리가 번성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자연환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규사, 석회석, 납 등을 섞어 1400도 정도에서 녹여야 가공이 가능한 액체 상태로 되는 유리의 원료를 녹이는데 필요한 열감을 구할 수 있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란 점이다. 보헤미아는 아주 먼 옛날 바다 속에 잠겨 있다가 빙하기를 거치면서 울창한 숲으로 변했다. 따라서 질 좋은 규사를 함유한 사암과 숲의 나무에서 풍부한 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체코가 크리스탈로 유명한 것은 바로 이, 모래가 오랜 시절 굳어 생긴 바위 - 사암(沙岩)이 주변 광산에 많기 때문이다.

또 16세기 후반 보헤미아를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루돌프 2세는 보헤미아의 유리 장인들에게 세금 면제 특혜를 주며 장려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

게다가 17세기 유리공업기술을 이끌던 베네치아 유리 장인들의 이주와, 크리스탈의 발견, 그리고 보헤미아만의 독특한 유리공업 기술의 창조-검은 색을 띠는 히야리시(hyalith 그리스어로 유리라는 뜻) 유리와 빨간색을 내는 루비 글라스, 구리나 돌로 된 바퀴 모양의 둥근 판을 돌려 유리 표면을 갈아 장식하는 “바퀴 새김(wheel-engraving)” 기법, 유리사이에 금을 넣는 ‘이중벽 유리’ 등 자신들만의 기술을 개발하여 보헤미아 유리의 명성은 18세기 유럽 전역에 퍼졌다.



Hyalith glass from ca. 1828



Roemer glass from ca. 1890



Christmas ornaments, ca.1860



Engraved crystal glass, ca. 1720

3. 체코의 유리작가와 유리기법

1920년에 설립된 켈레즈니 브로드(Železný Brod) 유리 학교를 중심으로 모여든 유리 작가들은 기존의 그릇, 잔 같은 실용성 위주의 유리 제작이 아닌 예술 작품의 소재로서 유리를 보기 시작했다. 현대 유리의 새로운 장르를 여는 이러한 생각의 전환으로 체코 유리는 또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켈레즈니 브로드 마을은 그 중심에 자리한다.

유리 마을 켈레즈니 브로드에서 유리는 생활이다. 조부모, 부모가 해오던 가업이며 글로벌 시대인 지금도 그 자손이 대를 이어가는 숙명 같은 삶이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는 유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꼭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이 마을에는 가족 모두 혹은 대부분이 유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대 유리 예술의 거장인 스타니슬라브 리벤스끼(Stanislav Libenský)와 그의 아내 야로슬라바 브리흐토바(Jaroslava Brychtová) 부부의 집안도 그러하다. 이들의 작품은 유리의 특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고 수준의 유리 작품을 제작했다는 평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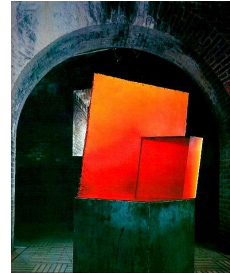
1958년 벨기에 브뤼셀 세계박람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후 브라질 상파울로 비엔날레 금상, 독일 뮌헨의 세계 예술전시에서 금상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상과 전시를 하였고 리벤스끼가 지병으로 2002년 타계할 때까지 끊임없이 작품을 제작, 전시하였다.

작품의 전시와 관리, 스튜디오의 총 책임을 맡았던 사람은 그들의 아들인 야로슬라브 자흐라드넝(Jaroslav Zahradník)이며 그의 아내 또한 유리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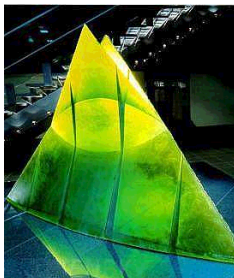
그 뿐만 아니라 쉐레즈니 브로드에 있던 리벤스끼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의 대부분은 브리흐또바의 조카인 라도반 브리흐따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의 전공이 유리가 아니었음에도 어려서부터 보아온 유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한 지금은 금속 공예를 전공한 라도반 브리흐따의 아들이 대를 이어 유리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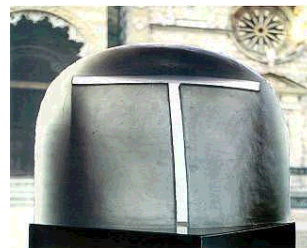
SPACE I, II, III
private collection
1991-92, 85x85cm



OPEN WINDOW
exhibition in Prague Castle
1992, 87x92x32cm



GREEN EYE OF THE PYRAMID
glass melted in molds, collection of Corning corp.
1993, 185x285cm



HEAD T
exhibition Grandi Vetri, Bergamo
1996- 97, 90x106x36cm

야로슬라바 브리흐또바의 아버지인 야로슬라브 브리흐따(Jaroslav Brychta)는 1920년 쉐레즈니 브로드에 학교가 설립된 때부터 40년간을 교수로서, 한때는 학교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주로 구슬이나 단추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 테크닉인 램프워킹을 전혀 새로운 방법 - 조각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는 학교가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성향의 작품을 중점으로 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하여 1925년 프랑스 파리 세계 전시회에서 학교는 그랑프리를 브리흐따는 금상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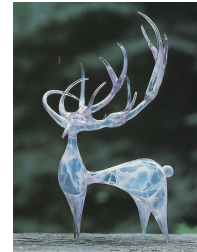
1927년 그는 유리를 불어서 성형하는 블로잉 작업과 램프워킹을 합성하여 블로잉 램프워킹이라는 것을 고안해 낸다. 이로 인해 그의 입지는 세계적으로 굳혀졌으며 그의 딸인 브리흐또바가 캐스팅 테크닉으로 그의 명성을 이어갔다.



Hansel with dragon, 1927



Goalkeepers, 1931



Blowing Lampworking, 1966~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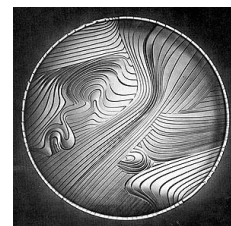
리벤스끼와 브리흐또바 부부의 가족이 캐스팅 유리과 램프워킹 유리를 중점적으로 사용한 반면 올리바(Oliva)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모두 서로 다른 테크닉을 사용한다. 이 집안에서 리벤스끼처럼 세계적 명성을 얻은 작가가 배출된 것은 아니지만 가족 모두가 유리를 천직으로 여기며 자신의 일에서 만족감과 애정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22년간 쉘레즈니 브로드 유리 학교에 재직했던 라디슬라브 올리바(Ladislav Oliva)는 만 15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60년 동안 유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긴 세월만큼이나 다양한 기법들을 다루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커팅 글래스와 유리에 모래를 분사시켜 그 압력으로 조각을 하는 샌드 블래스팅 기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에 반해 그의 아내 에바 올리보바(Eva Olivová)는 전통적으로 유리 장식에 많이 쓰인 페인팅 기법을 사용한다.



Plate, 1958



Plate, 1966

그들의 두 아들인 토마쉬 올리바(Tomaš Oliva)와 라디슬라브 올리바(Ladislav Oliva)는 1991년부터 14년 동안 블로잉 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했다. 바로크 스타일이나 베네치안 스타일 등 오래된 느낌의 유리를 주로 제작하는데 그 분야에서는 체코에서도 몇 안 되는 장인들이다. 동생인 라디슬라브 올리바 주니어는 블로잉 작업 외에 개인 작업으로 스테인드 글래스와 캐스팅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은 혼자 독립된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기법을 위주로 작업하고 있다. 이 두 형제의 아내들 또한 램프워킹을 전공한 유리 작가들이며 이제는 그들의 자녀도 유리 가업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한다.



Venetian style & Baroque style drinking glass

4. 유리특성화에 따른 효과

이렇게 한 집안이, 혹은 한 마을 전체가 어떤 특정한 것으로 명성을 얻고 이미지가 확고하게 굳어지면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특히 그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그 효과는 더욱 직접적이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개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어려서부터 가족들에게서 혹은 이웃에게서 자연스럽게 유리를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며, 유리를 다루는 특수한 기술의 습득도 용이하다. 또한 가족, 이웃과 같은 일을 한다는 동료 의식이 저변에 생성됨으로써 마을 사람들을 묶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마을 전체적으로는 우선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준다. 이미 수 세기 동안 유리의 산지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유리 하나를 보기 위해 그 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많다. 유리 학교를 비롯해 큰 유리 공장 그리고 크고 작은 스튜디오가 산재해 있어서 그것을 다 보자면 며칠은 소요된다.

그 뿐만 아니라 유리와 관련된 상업적인 의도에서, 또는 예술적인 의도에서도 많이 찾는다. 유리 제품을 프라하의 상점에 팔기 위한 상인들뿐만 아니라 수입을 하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바이어들이 찾아온다. 백화점에 가면 여러 가지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해볼 수 있어서 편리하듯 이 마을에 가면 여러 가지 기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유리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판매자에게 직접적인 수입으로 되돌아옴으로써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예술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체코의 유리 작가들과 세계의 유명한 유리 작가들이 마을을 찾기도 한다. 실용성 위주의 작품을 제작하는 곳 이외에 숙련된 장인들이 예술작품을 전문으로 제작해주는 스튜디오들도 제작 기법별로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여드는 관광객들이 다른 관광 수입도 가져다주며 이는 이 마을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한 마을이나 지역의 특성화를 조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연구와 조사로 그곳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또한 체코 유리가 세계적 명성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동안 노력해온 것처럼 인내를 가지고 끊임 없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거기에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의 일에 대한 열정이 더해진다면 기대를 가지고 그곳을 지켜봐도 좋을리라 여겨진다.